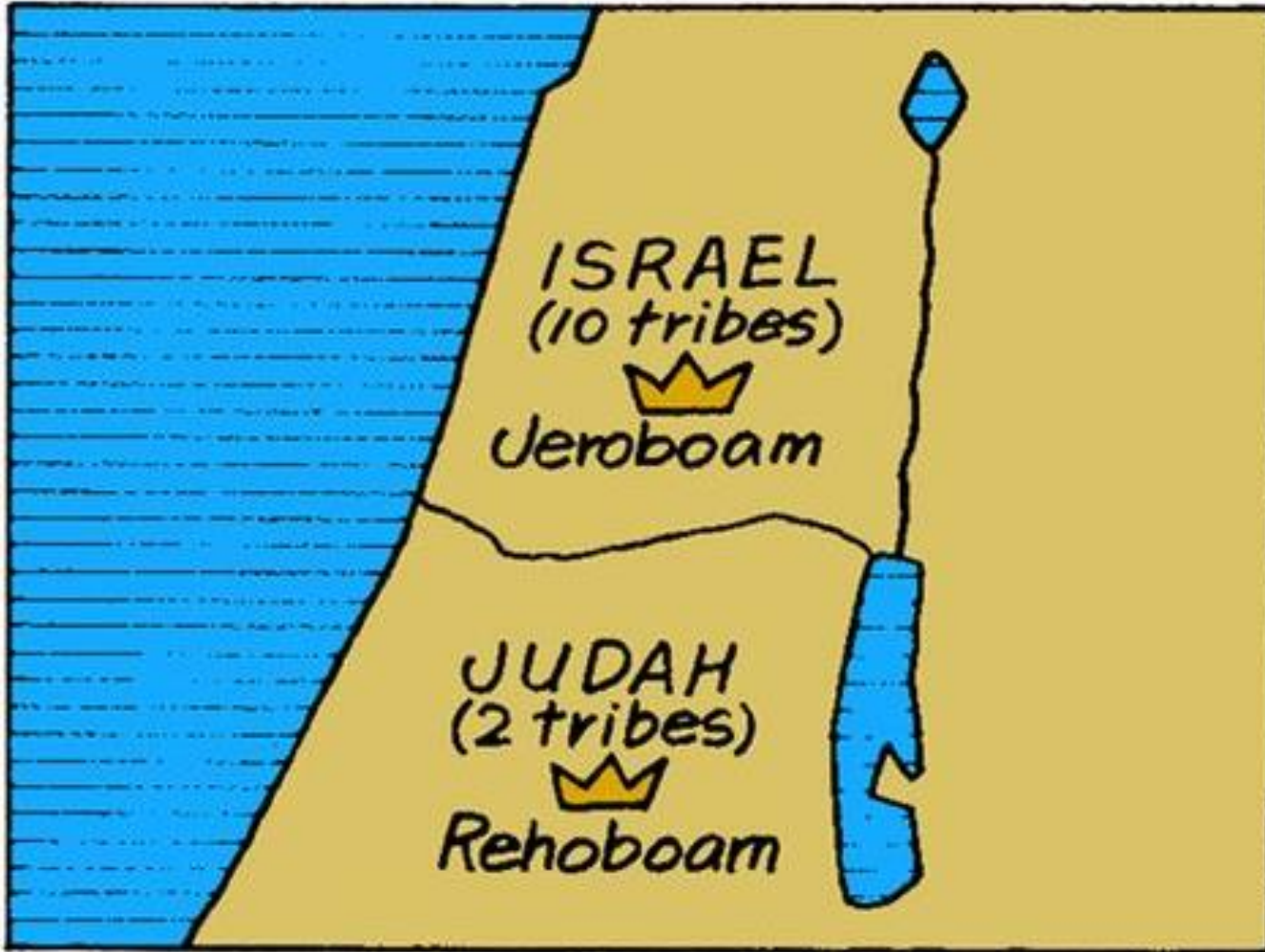


제6강의(8월10일)

'통일과 분열' 솔로몬과 남북왕들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하느님의 자랑스런 선민 하나의 이스라엘이 황막한 사막에서는 지파들이 서로 평등하고 강하더니 약속의 땅에 들어서서 먹고 살만 하고 부유해지더니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생기고 결국 이스라엘 제국과 유다 제국으로 갈라진다.

기원전 722년에 이스라엘 국가가 기원전 587년에 유다 국가가 멸망한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 예언자가 염려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

(1사무 8,11-18)



ARAM

NAPHTALI

ASHER

MANASSEH

ZEBULUN

ISSACHAR

MANASSEH

EPHRAIM

GAD

AMMON

DAN

BENJAMIN

REUBEN

JUDAH

MOAB

SIMEON

ALLOCATION OF LAND
TO 12 TRIBES OF ISRAEL





Jeroboam



Rehoboam

-아도니아와 솔로몬-

다윗은 성왕으로서 사울시대에 통합을 이루지 못했던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예루살렘에 수도를 정함으로써 중앙집중 정치 체제를 구축했다. 거기다 적에게 빼앗겼던 하느님의 궤를 찾아오므로써 이스라엘 민심을 제정일치의 안정시대로 이끌었다.

דָּוִד



다윗이 흠이 있다면 후계자를 미리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말년에 골육상잔의 뼈아픈 정치보복이 일어났고 왕가가 평화롭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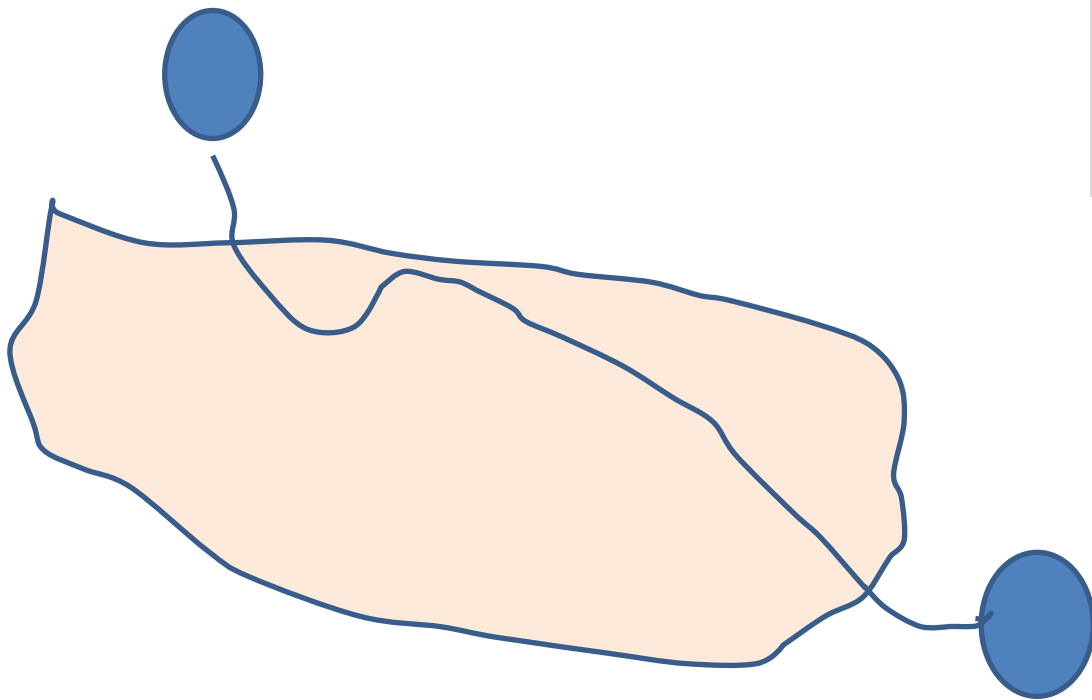
아도니야는 요압, 에브야타르 사제의 지지를 받는다. 그러나 이에 맞서 솔로몬을 중심으로 나탄과 바트 세바의 합작으로 솔로몬을 후계자로 다윗이 뽐도록 유도하여 드디어 솔로몬이 왕으로 선포된다.

아도니야는 왕자들인 자기의 모든 형제와 임금의 신하들인 유다의 모든 남자를 엘 로겔 근처 조헬렛 바위에 불러 놓고, 양과 소와 살진 송아지를 잡아 제사를 드렸다. 그러나 나탄 예언자와 부나야와 용사들, 그리고 자기 동생 솔로몬은 부르지 않았다.(1열왕 1,9-10)

차독 사제, 나탄 예언자, 브나야, 크렛 사람들과 펠렛 사람들이 내려가 솔로몬을 다윗 임금의 노새에 태워 기혼으로 데리고 가서 차독 사제가 기름을 솔로몬에게 붓고 임금으로 선언한다.

성경의 본문은 '모든 백성이 그의 뒤를 따라 피리를 불고 올라가며 환호하는 소리가 컸다.'라고 전하고 있다.

기혼샘



실로암

엔 로겔 근처
조헬렛 바위



兔死狗烹

너그럽고 후했던 다윗은 솔로몬 후계자에게 츠루야의 아들 요압을 제거하라는 솔로몬에게 주문한다. 요압은 다윗생전에 가장 충실했던 부하였고 그는 압살롬의 난을 평정해서 다윗이 다시 왕으로 회복하는 데에 일등 공신이였다. 두 장수 아브네르와 아마사를 죽인 사실을 들어 정치 보복을 주문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가신이었던 에브야타르를 죽이지는 않았지만 사제직에서 내쫓았다. '토끼사냥이 끝나면 쓸모 없는 개를 잡아 먹는다'라는 '토사구팽(兔死狗烹)'격인 것이다.

Joab

Abner

Amasa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간다. 너는 사나이답게 힘을 내어라. 주 네 하느님의 명령을 지켜 그분의 길을 걸으며, 또 모세 법에 기록된 대로 하느님의 규정과 계명, 법규와 증언을 지켜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1열왕 2,2-3)

더구나 너는 츠루야의 아들 요압이 나에게 한 짓,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수, 네르의 아들 아브네르와 예테르의 아들 아마사에게 한 짓을 알고 있다. 요압은 그들을 죽여 전쟁 때에 흘린 피를 평화로운 때에 갚음으로써, 그 피를 자기 허리띠와 신발에 묻혔다. 그러니 너는 지혜롭게 처신하여, 백발이 성성한 그자가 평안히 저승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여라. (1열왕 2,5-6)

그러나 길앗 사람 바르질라이의 아들들에게는 자애를 베풀어, 네 식탁에서 함께 먹게 하여라. 그들은 내가 네 형 압살롬을 피해 달아날 때, 나를 그렇듯 충성스럽게 맞아 주었다. (1열왕 2,7)

또 바후림 출신으로 벤야민 사람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는데, 그는 내가 마하나임에 간 날 나를 심하게 저주한 자다. 그렇지만 그가 요르단 강으로 나를 마중 나왔을 때, 나는 주님을 두고 '그대를 칼로 죽이지 않겠소.' 하고 맹세하였다. 그러나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이제 그런 자에게 벌을 내리지 않은 채 그냥 두지 마라. 너는 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 것이다. 백발이 성성한 그자가 피를 흘리며 저승으로 내려가게 해야 한다.(1열왕 2,8-9)

다윗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 성에 묻혔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마흔 해이다. 헤브론에서 일곱 해, 예루살렘에서 서른세 해를 다스렸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왕좌에 앉자, 그의 왕권이 튼튼해졌다. (1열왕 2,10-12)

“어찌하여 어머니께서는 아도니야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청하십니까? 차라리 그에게 나라를 주라고 청하시지요! 그는 저의 형이고, 또 그의 편에 에브야타르 사제와 츠루야의 아들 요압도 있으니 말입니다.”
(1열왕 1,22)

암논(아히노암)
압살롬 (미아가)
아도니야(하깃)
솔로몬(밧 세바)

David

Amnon

Absalom

Adonijah

Solomon

사무엘의 아들 요엘, 아비아는 판관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필리스티아와 인접 국가들의 위협 앞에서 불안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사무엘에게 “우리를 통치할 임금을 정해 주십시오.” (1사무 8,6)라고 청한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사막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신정(神政)'에서 '왕정(王政)'으로 바뀐다.

사무엘은 그들이 앞으로 인간에게 뿌리를 둔 왕을 갖게 되면 여러 가지 폐단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좋은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을 빼앗을 것이고 곡식고 포도 밭에서 십일조를 거두어 자신의 내시와 신하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이라고 백성들 앞에서 설명한다. 그리고 뼈 아픈 이야기를 해준다. “여러분의 양 떼에서도 십일조를 거두어 갈 것이며, 여러분마저 그의 종이 될 것이오. 그제야 여러분은 스스로 뽑은 임금 때문에 울부짖겠지만, 그때에 주님께서서는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오.”(1사무 8,17-18)

정치는 인간과 인간 사이를 긴장관계로 연결된다. 개인이 아닌 추종 집단이 있기에 뚜렷한 방향을 잡기가 힘들고 어디로 가는 방향을 잡기도 힘들다. 서로 불목하기 쉽다.

政治(정치)



왜 그럴까? 그 세력의 힘이 인간에 바탕을 두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신명기계 신학이 정치판단은 부정적이다.

인간에게 뿌리를 둔 정치는 온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리저리 밀리는 부평초에 비유할 수 있다. 군중은 색깔이 없고 소수의 통치자들에 의해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린다. 그리고 정치에는 아버지와 아들, 또 형제지간도 없다.(아비멜렉, 압살롬과 암논)

임금은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주님 앞에 희생 제물을 바쳤다. 솔로몬은 주님께 친교 제물을 바쳤는데, 황소 이만 이천 마리와 양 십이만 마리를 바쳤다. 이렇게 임금과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의 집을 봉헌하였다. 바로 그날, 임금은 주님의 집 앞에 있는 뜰 한가운데를 성별하고, 그곳에서 번제물과 곡식 제물, 그리고 친교 제물의 굳기름을 바쳤다. 주님 앞에 있는 청동 제단이 너무 작아서, 번제물과 곡식 제물, 그리고 친교 제물의 굳기름을 담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1열왕 8,62-64)

예로보암이라는 사람은 힘센 용사였다. 솔로몬은 그 젊은이가 일하는 것을 보고 그를 요셉 집안의 모든 강제 노동의 감독으로 임명하였다. (1열왕 11,28)

아히야는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움켜쥐고 열두 조각으로 찢으면서, 예로보암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열 조각을 그대가 가지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1열왕 11,30-31)

'이제 내가 솔로몬의 손에서 이 나라를 찢어 내어 너에게 열 지파를 그러나 한 지파만은 나의 종 다윗을 생각하여,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내가 뽑은 예루살렘 도성을 생각하여 그에게 남겨 두겠다. (1열왕 11,31-32)

이는 그가 나를 버리고 시돈의 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크모스, 암몬 자손들의 신 밀콤을 예배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나의 길을 걷지 않고, 내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지도 않았으며, 나의 규정과 법규를 지키지도 않았다. (1열왕 11,33)

한 지파는 그의 아들에게 주겠다. 그리하여 나의 종 다윗에게 준 등불이 내 앞에서, 내 이름을 두려고 뽑은 도성 예루살렘에서 언제나 타오르게 하겠다. (1열왕 11,36)

양두사미 龍頭蛇尾



-르하브암과 예로보암-



רחבעם



ירבעם

Σήλωμων

המלך



솔로몬의 시작은 감동적이다. 기브온에서 꿈을 꾸며 하느님의 말씀을 받을 때만해도 그는 순수했고 겸손했다.

그가 천 마리의 번제물을 바치곤 하던 큰 산당에서 한 밤중에 하느님께서 꿈에 바로 임금이 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다.

하느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하자 그는 '저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아서 백성을 이끄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당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 백성을 통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어느 누가 이렇게 큰 당신 백성을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1열왕 3,7.9)

하느님께서 솔로몬이 보시기 좋으셔서 그에게 그가 청한 대로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을 주신다. 그리고 그가 청하지 않은 부와 명예까지도 주신다.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과 그가 계획했던 건축을 마쳤을 때, 하느님께서 다시 기브온 나타나신다



<http://www.repsandsets.org/327m.html>

“내가 네 아버지 다윗이 걸은 것처럼 내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바르게 걸으며,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실천하고 내 규정과 법규를 따르면, 나는 너의 왕좌를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세워 주겠다. 그러나 만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나에게서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내놓은 계명과 규정을 따르지 않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예배하면, 나는 내가 준 땅에서 이스라엘을 잘라 버리고,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별한 이 집을 내 앞에서 내 버리겠다.”(1열왕 9,4.6-7)

솔로몬은 초반에 지혜가 빛났지만 말년에 이르러 나태해지고 부에 취해서 분별력을 잃어간다. 수많은 외국인 부인들을 맞고 그녀들의 종교를 따라 가면서 그가 변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솔로몬이 늙자 하느님보다는 부인들의 신들에게 마음을 점점 빼앗기고 그들과 사랑에 몰두하는 모습으로 변한다. 그에게는 왕족 출신 아내가 칠백 명, 후궁이 삼백 명이나 있었으니, 그가 얼마나 호색한으로 변했는지를 성서기자는 밝히고 있다. 그는 점점 하느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국운도 기울어지기 시작한다.

솔로몬 왕은 성전을 짓고(6장) 다시 호화로운 왕궁을 짓고(7장) 건축활동을 활발히 하는데 여기에는 백성들이 강제부역에 동원되어야 하고 점점 도탄에 빠지게 된다.

서서히 왕에 대한 반감이 점점 커지는 것이다. 이렇
즈음 솔로몬이 강제 노동 감독으로 세운 에프라임
사람 예로보암에게 아히야 예언자를 통해 장래 열
지파의 새로운 지도자인 왕으로서의 미래를 예언 받
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솔로몬은 그를 잡으려
하고 그는 그를 피해 이집트로 도망을 가서 솔로몬
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지낸다.

솔로몬이 죽자 온 이스라엘이 스켄에 모여 솔로몬의
아들 르하브암을 세우려 한다. 예로브암은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집트를 떠난다. 그리고 솔
로몬의 아들 르하브암 앞에 예로브암이 자신의 추
종자들과 함께 르하브암 앞에 나선다.

르하브암은 스킴으로 갔다.

온 이스라엘이 스킴에 모여 그를 임금으로 세우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은 솔로몬 임금을 피하여 이집트로 달아나 있다가 거기에서 이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예로보암은 이집트에서 돌아왔다. (1열왕 12,1-2)



“임금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멩에를 힘겹게 하셨습니다. 이제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지우신 힘겨운 일과 무거운 멩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1열왕 12,4)

그러나 르하브암은 사흘 후에 오라고 이고 부왕의 원로들을 불러 의견을 듣는다.

“오늘 임금님께서 저 백성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자 하시면, 그들에게 좋은 말씀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저 백성이 언제나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1열왕 12,7)

그러나 르하브암은 원로들의 의견을 버리고 함께 자란 젊은이들과 자기를 받는 자들과 의논한다. 그러나 임금은 원로들이 내놓은 의견을 버리고, 그 대신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이들로서 자기를 받드는 자들과 의논한다.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메우신 멩에가 무거우니 그것을 가볍게 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는 저 백성에게 임금님께서서는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소. 내 아버지께서 그대들에게 무거운 멩에를 메우셨는데, 나는 그대들의 멩에를 더 무겁게 하겠소. 내 아버지께서는 그대들을 가죽 채찍으로 징벌하셨지만, 나는 갈고리 채찍으로 할 것이오.’”(1열왕 12,10-11)

예로보암은 온 백성과 함께 사흘째 되는 날에 르하브암에게 갔는데 그는 원로들의 의견은 버리고 젊은이들의 의견을 따르면 거칠게 대답한다. (1열왕 12,11-13)

임금이 사흘 뒤에 다시 오라고 이른 대로, 예로보암은 온 백성과 함께 사흘째 되는 날에 르하브암에게 갔다. 임금은 원로들이 내놓은 의견을 버리고 백성에게 거칠게 대답하였다.(2열왕 12,12-13)

그는 젊은이들의 의견대로 백성에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께서 그대들의 멍에를 무겁게 하셨는데, 나는 그대들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하겠소. 내 아버지께서는 그대들을 가죽 채찍으로 징벌하셨지만, 나는 갈고리 채찍으로 할 것이오.”(1열왕 12,14)

온 이스라엘은 예로보암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집회에 불러서 온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다. 유다 지파 말고는 아무도 다윗 집안을 따르지 않았다. 르하브암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온 유다 집안과 벤야민 지파에 동원령을 내려 정병 십팔만을 모았다. 이스라엘 집안과 싸워 솔로몬의 아들 르하브암의 왕권을 되찾으려는 것이었다. (1열왕 12,20-21)

그런데 하느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하느님의 말씀이 내렸다. “유다 임금, 솔로몬의 아들 르하브암과 온 유다와 벤야민 집안과 나머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동족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올라가 그들과 싸워서 안 된다. 저마다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렇게 된 것은 나의 뜻이다.’” 그러자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모두 주님 말씀대로 돌아갔다. (1열왕 12,22-24)

온 이스라엘은 임금이 자기들의 말을
들어 주지 않은 것을 보고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1열왕 12,16)

“우리가 다윗에게서 얻을 몫이 무엇이
냐? 이사이의 아들에게서 받을 상속
재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네 천막으로
돌아가거라. 다윗아, 이제 네 집안이나
돌보아라.”(1열왕 12,16)

르하브암 임금은 서둘러 병거에 올라타고 예루살
렘으로 도망쳤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다윗 집안에
반역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1열왕 12,19)

Kings of Israel



SAUL



DAVID



SOLOMON



REHOBOAM
JUDAH
2 tribes

JEROBOAM
ISRAEL
10 tribes



유 다	이 스 라 엘
르하브암	예로보암
아비얌	나답
아사	바아사
여호사팻	엘라
여호람	지무리
아하즈야	[티브니]
아틸야	오므리
요아스	아합
아마츠야	아하즈야
아자르야	요람
우찌야	예후
요탐	여호아하즈
아하즈	여호아스
히즈키야	예로보암2
므나쎄	즈카르야
아몬	살롬
요시아	므나헴
여호아하즈	프카흐야
여호야킴	페카
야호야킨	호세아
치드키야	



지중해

아시리아제국

아람-다마스쿠스

이스라엘 왕국

암몬

아몬

유다 왕국

모압

필리스티아

에돔



정치의 특징은 통합이 아니라 결국은 갈라지고 감정이 골이 깊어지고 보복과 보복으로 이어지고 만다.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도 정치의 입김이 들어가자 여지 없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말았다.

정치와 종교는 서로 공동선에서 만나지만 근본적으로 출발이 인간이냐? 아니면 하느님이냐?을 놓고 볼 수 있다. 정치는 인간에게 뿌리를 두고 있다.

르하브암의 잘못은 백성들의 말을 무시하고 특히 아버지 다윗과 연결되어 있는 나이 많은 신하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자기를 주종하는 사람의 의견을 따는 것이다. 정치는 아무리 힘이 있다해도 과거와 연결시켜서 보는 지혜와 경험이 필요하다.

예로보암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였다. '어쩌면 나라가 다윗 집안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집에 희생 제물을 바치러 올라 갔다가, 자기들의 주군인 유다 임금 르하브암에게 마음이 돌아가면, 나를 죽이고 유다 임금 르하브암에게 돌아 갈 것이다.' 그래서 임금은 궁리 끝에 금송아지 둘을 만 들었다. (1열왕 12,26-28)

그리고 나서 금송아지 하나는 베텔에 놓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다. 그런데 이 일이 죄가 되었다. 백성은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하러 베텔과 단까지 갔다. 임금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의 자손들이 아닌 일반 백성 가운데에서 사제들을 임명하였다. (1열왕 12,29-31)



금송아지 하나는
베텔에,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다

Northern and Southern Kingdoms (Adapted from [Wikicommons](#))

이렇게 그는 베텔에서 자기가 만든 송아지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자기가 만든 산당의 사제들을 베텔에 세웠다. 임금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인 여덟째 달 열닷셋 날이 되면, 베텔에 세운 제단에 올라갔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킬 축제일을 이렇게 정하고, 그 제단에 분향하러 올라갔던 것이다. (1열왕 12,32-33)

반대를 위한 구호는 듣기에는 신선할 수도 있고 또 충격일 수도 있다. 그래서 혁명을 부르짖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한다.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결국 현실에 동화되기도 한다. 유다로부터 새로움을 시도했던 예로보암은 결국 그들 등뒤에서 안이함을 추구하고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



레바논의 비닷가에 면하고 있는 베발로스에서 출토된 수당.



사마리아 멸망
(기원전 722년)

이스라엘
호세아

Artist:
Don Lawrence

히즈키야의 유다 통치

그는 자기 조상 다윗이 하던 그대로,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그는 산당들을 없애고 기념 기둥들을 부수었으며, 아세라 목상들을 잘라 버렸다.
그리고 모세가 만든 구리 뱀을 조각내었다. 느후스탄이라고 불리던 그 구리 뱀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때까지도 향을 피웠기 때문이다. 그는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을 신뢰하였다. 그의 뒤를 이은 유다의 모든 임금 가운데 그만 한 임금이 없었고,
그보다 앞서 있던 임금들 가운데에서도 그만 한 임금이 없었다. 그는 주님께 매달
려 그분을 따르는 일에서 돌아서지 않고, 주님께서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들을 지
켰다. 주님께서서는 그와 함께 계시며,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하게 해 주셨다.
그는 아시리아 임금에게 대항하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2열왕 18,3-7)

요시아의 종교개혁

임금은 힐키야 대사제와 두 번째 서열의 사제들과 문지기들에게 명령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모든 군대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기물들을 모조리 끌어내게 하였다. 그는 그것들을 예루살렘 밖 키드론 들판에서 태우고, 그 재를 베텔로 가져갔다. 그는 또 유다 임금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둘레에 있는 산당들에서 분향하도록 내세운 우상 숭배 사제들을 내쫓았다. 또한 바알과 해와 달과 별자리들과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분향하던 자들도 내쫓았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주님의 집에서 예루살렘 밖 ‘키드론 골짜기’로 끌어내다가, 그것을 ‘키드론 골짜기’에서 태우고 가루로 만든 다음, 서민 공동묘지에 뿌렸다.(2열왕 23,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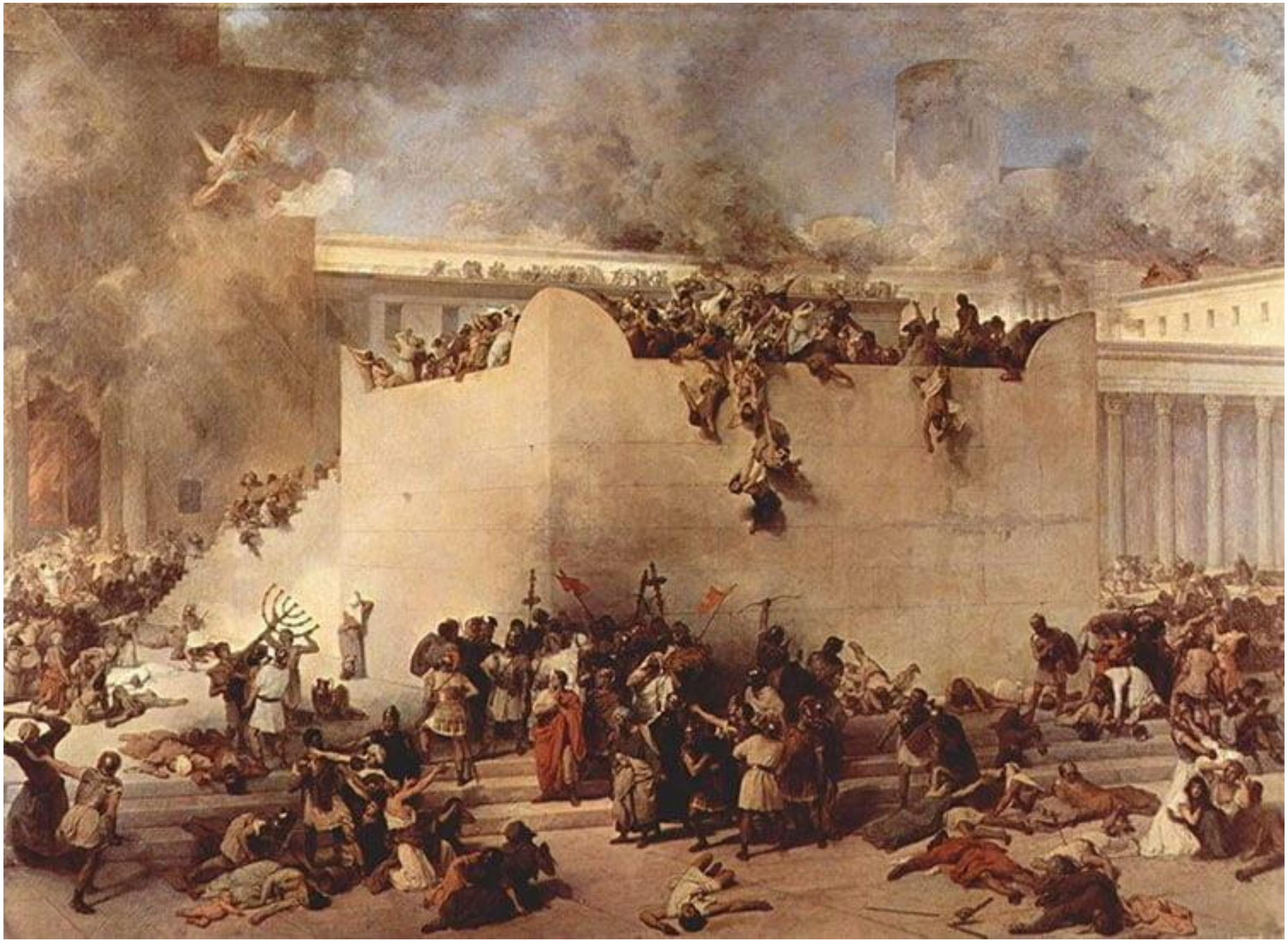
예루살렘의 함락



그래서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는 치드키야 통치 제구년 열째 달 초열흘날에, 전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곳을 향하여 진을 치고 사방으로 공격 축대를 쌓았다. 이렇게 도성은 치드키야 임금 제십일년까지 포위당하였다. 그달 초아흐렛날, 도성에 기근이 심해지고 나라 백성에게 양식이 떨어졌다. (2열왕 25,1-3)



드디어 서벽이 뚫렸다. 그러자 군사들은 모두 칼데아인들이 도성을 둘러싸고 있는데도, 밤을 틈타서 임금의 정원 곁에 있는 두 성벽 사이 대문을 통하여 아라바 쪽으로 갔다. 칼데아인들의 군대가 임금을 뒤쫓아 예리코의 들판에서 그를 따라잡자, 그의 모든 군대는 그를 버리고 흩어졌다. 그들이 임금을 사로잡은 다음, 리블라에 있는 바빌론 임금에게 데리고 올라가니, 바빌론 임금이 그에게 판결을 내렸다. 그는 치드키야의 아들들을 그가 보는 가운데 살해하고 치드키야의 두 눈을 멀게 한 뒤, 그를 청동 사슬로 묶어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2열왕 25,4-7)





예루살렘 멸망
(기원전 587년)

유다왕 치드키야

바빌론 유배시작